

#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주요 날짜:

-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 월 5 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 월 7 일  
Soup Kitchen 봉사
- 1 월 14 일  
성경모임
- 1 월 16 일  
프란치스코 칸  
순교자들, 성  
베라르도 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
- 1 월 28 일  
월례회

## 다음쪽:

도미니코 신부님 방문  
형제회 설립식



## 행복을 주는 사람

오 정은 올리아나

안녕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한 장의 달력을 볼 때면 항상 허전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드는 12 월입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하느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로 써야 하는지 고심하던 끝에 행복이라는 화두가 떠올라 몇 자 올립니다.

올해 병술년이 기울어가고 내년엔 돼지띠인 정해년이 다가옵니다. 600 년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띠인 내년을 위해 여러분께서는 무슨 설계를 해 두셨는지 궁금하군요. 성인집에 보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합니다. 행복, 희망, 성공 이 모든것을 갖고 얻고자 한다면 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숨은 빛나는 1%를 찾아서 삶의 기적을 체험해 보면 어떨지요? 행복의 조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움켜쥔 것들을 조건없이 내려놓을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다 하였습니다만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생각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면서 잊지 않을 때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생각,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마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설레이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되살아나 팍팍해진 삶에 위안을 주면서 새로운 힘을 주고 열정을 되살려 주리라 믿습니다. 자! 2007 년도부터라도 우리 모두 내려놓음이 일깨우는 역설의 가르침을 깨닫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존재의 몫을 다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인식하고 사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의 전제가 아닐까 합니다. 잠깐 만나서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지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

고 편한 사람, 나도 그렇게 남들에게 행복감을 퍼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나 말로써 하는 사랑보다는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나도 기뻐하고,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도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지만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느님께로 가고 있기에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아야 하고 참된 그리스도 신자는 비관론자나 염세가가 아니라 낙천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년에는 모두에게 소망한 건강벼락, 돈벼락, 명예벼락 한번 맞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또한 염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짧은 글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새는 황혼녘에 날개를 펴고 난다 했습니다. 황혼은 낮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마침내 뒤돌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다.' (헤겔) 그럼 이만 펜을 놓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2007 년에도 모두 화이팅!! 아자, 아자.

[혹시 이글이 바오로씨(부군)의 도움을 받았나 의혹을 가지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순수 무공해적으로 킁킁대면서 올린 글입니다.]

## 11 월 월례회

추수감사절이 있는 관계로 한주일 앞당겨진 월례회가 지난달 19 일에 있었습니다. 성가와 기도를 시작으로 Mark 수사님께서 회칙 4 조를 주제로 복음의 정의에 관한 토의를 이끌어 주셨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해야 할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靑一点

점 10 가지를 한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업적 분위기로 팽배해 있는 성탄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차분히 대림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간단한 다과와 친교, 각 반별 양성이 이어졌고, 다시 모인 자리에서 형제회 회장 어거스틴 형제가 모두에게 형제회 일에 우선 순위를 둘 것과 적극적인 월례회 참석, 전임 봉사자들의 모범적 참여 자세 그리고 피양성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양성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무일도와 회칙기도를 끝으로 월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도미니코 신부님 방문

올해는 못 뵈고 그냥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작은형제회의 김 용철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새로운 모습(사진 참조)으로 지난달 30 일 형제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요셉, 마리아 부부택에서 함께 한 자리에서 그간의 ‘프란치스코의 집’ 사업 및 건축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무성한

빛 이야기등 신부님의 현지에서의 ‘눈부신 활약’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에 모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일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탓인지 조금은 지치신 모습이셨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자신있는 능숙한 ‘사업가’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모두 마음이 놓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미니코 신부님, 파이팅!

### 형제회 설립식

11 월 26 일 LA 의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형제회 설립식에 이어 이달 10 일에는 Westminster 의 성 글라라 형제회의 설립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회를 포함한 성 프란치스코 지구의 많은 형제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형제회와 이 두 형제회의 모 형제회였던 OC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한 형제님의 세 형제회를 분가시키느라 이제 남아있는게 없다는 뼈있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토록 형제들이 불어나게 배려하시는 주님과 성 프란치스코의 보살피심에 감사드리면서, 첫 걸음을 딛는 두 형제회에 저희 모두의 진심어린 축하와 성원과 사랑을 듬뿍 보내드립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망부석이 될 뻔한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 모두는 재림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때때로 눈먼 수탉처럼 무분별한 종말을 외치는 소위 휴거론자가 나타나 세상을 미혹에 빠지게도 하나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마태 24,36) 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법을 깨우쳐 가고 있다 하겠다. 기다림의 법, 그 기다림이 우리의 묵임은 영원성이 하느님의 본질임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기다림은 실존하는 시간 속에 가능하니 하느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살아 가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종류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개인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하느님 뜻에 부합하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할 때 그 기다림은 곧 지혜로운 기다림으로 승화되며 지혜로운 기다림은 곧 사랑으로 충만된 기다림이 된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된 그 기다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각자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한 깨어있음의 필요조건이며 또한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 기도 그리고 기다림



편집부